

Chairman Royce Stands Up for Korean Americans

Dear Friend,

As Chairman of the Foreign Affairs Committee, I do all that I can to support strong U.S.-South Korea ties and the vibrant Korean American community.

I just returned from a successful trip to South Korea where I led a bipartisan delegation of Member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e purpose of the trip was to discuss how the United States can further support one of our closest allies, South Korea. The U.S.-South Korea relationship is today more important, strategically and economically, than it has ever been. With an ever belligerent North Korea, it is imperative that the U.S. reaffirm its strong support for Seoul. I've spent many years in Congress working to strengthen the U.S.-Korea alliance.

외교위원회 의장으로서, 저는 한미 양국간의 굳건한 동맹과 활기찬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제 모든 역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 양당의 하원의원 대표단을 이끌고 성공리에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방문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인 한국에 대한 향후 지원 방안 논의의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한미관계는 전략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북한의 도발적 태도가 악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다시 한번 공고히 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수년 간, 국회에서 한미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Chairman Royce presents Grandma Yongsoo Lee with an Award of Congressional Recognition for her efforts on behalf of all "comfort women."

로이스 의장이 "위안부"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헌신해 오신 이용수 할머니께 국회공로상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Chairman Royce is recognized by the Asian American Coalition for Education for supporting a government investigation of elite universities allegedly discriminating against Asian American applicants.

아시아인 아메리칸 지원자들에게 불공정한 입학사정을 적용해 온 명문 대학들에 대한 조사를 지지해 온 로이스 의장이 아시아인 아메리칸 교육연합 (AACE) 으로부터 공로패를 전달받고 있습니다.

In March, I authored a letter of nomination for Colonel Young Oak Kim to receive the Presidential Medal of Freedom, the highest civilian award in the United States which is bestowed b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Colonel Kim was a highly decorated U.S. Army combat veteran of World War II and the Korean War. To date, there has never been a Korean American recipient of the Presidential Medal of Freedom, and I believe that Colonel Kim is very deserving of this award posthumously.

I also cosponsored and voted for H.R.1475, the Korean War Veterans Memorial Wall of Remembrance Act of 2015 which passed the House in February. The bill ensures that the memorial in our nation's capital for the 40,000 brave Americans, many of Korean descent, and five million Koreans who lost their lives in the Korean War is fitting of their sacrifice. This bill would permit a privately funded addition of a "Wall of Remembrance" to the Korean War Veterans Memorial in Washington, D.C. The Wall would list the names of all members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who were killed in action during the Korean War.

I will continue to use my position as Chairman of the Foreign Affairs Committee to support U.S.-South Korea relations and Korean Americans. If there is any way I can serve your family, do not hesitate to contact me.



Chairman Royce meets with South Korean Defense Minister Han Min-woo about strengthening the security ties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로이스 의장이 한민구 국방장관을 만나 한미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Chairman Royce speaks with U.S. Army Colonel Lee, a Korean-American soldier, at Yongsan Garrison in Seoul about American military support for South Korea.

로이스 의장이 서울 용산기지를 방문하여 한국계 미국인 인 미 육군 이대령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3 월에는 미국 대통령이 수여하는 최고 시민 훈장인 대통령 자유 메달을 김영옥대령에게 추서하기 위한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김영옥 대령은 제 2 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공을 세운 한국계 미국 군인이었습니다. 아직 코리안 아메리칸이 대통령 자유 메달을 수여받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김영옥 대령이야말로 이 메달을 추서받기에 적합하다고 믿습니다.

또한 저는 지난 2 월 하원을 통과한 2015 한국전쟁 참전 용사 추모벽 건립에 관한 법안 (HR1475)을 공동 발의하고 서명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많은 한국계를 포함한 4 만 명의 용감한 미국인들과 한국전쟁 당시 목숨을 잃은 500 만 명의 한국인의 희생을 기리는 기념비를 워싱턴 DC 에 건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또한, 워싱턴 DC 한국전쟁 기념 공원 내 "추모의 벽" 건립을 위한 민간 기부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벽에는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모든 미군 병사들의 이름이 새겨지게 됩니다.

저는 외교위원회 의장으로서 미주한인과 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도움이 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주시시오.

Sincerely,

Ed Royce

Ed Royce
Chairman,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Chairman Royce Stands Up for Asian American Students

The Asian American Coalition for Education (AACE) awarded Chairman Ed Royce with the Champion of Equal Education Rights Award for calling for a government investigation of Harvard University's alleged discrimination against Asian American applicants. Chairman Royce is also supporting a government investigation of similar alleged discrimination by Yale University, Brown University, and Dartmouth College against Asian Americans.

AACE President Mr. Yukong Zhao said: "Chairman Ed Royce has been continuously supporting the Asian American community, especially in the field of equal education rights. Last year he took the lead to write a letter in support of our Administrative Complaint against Harvard's discriminatory admission practice against Asian American applicants."

Chairman Royce said: "Being Asian American should not be an obstacle to receiving a top university education. Asian American parents are right to be concerned when their hard-working, high-performing children are shut out of top schools. Any discrimination by elite universities against Asian American students is wrong."



Caleb Yee, a U.S. Air Force officer from Hacienda Heights, interned for Chairman Royce. Learn more about Congressional internships at www.royce.house.gov.

로이스 의장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던 한국계 미국인 케일럽 이군이 자신의 미 공군 장교 임관식에 로이스 의장을 초대했습니다.



Chairman Royce nominated Alex Yoonseok Cha of Buena Park for admission to the prestigious Merchant Marine Academy. Learn more about academy nominations at www.royce.house.gov.

로이스 의장이 부에나팍에 거주하는 알렉스 윤석 차군의 해군사관학교 입학을 추천을 해주었습니다. 사관학교 추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royce.house.gov 를 방문하십시오.

아시아인 미국인 교육연합 (AACE)은 하버드 대학의 아시아인 미국인 지원자 입학차별에 대해 조사를 요구한 에드 로이스 의장에게 평등교육 권리 최고상을 수여하였습니다. 로이스 의장은 예일대와 브라운대, 다트머스 대학교 등을 상대로도 이와 유사한 공동 소송을 준비중인 AACE 를 지지합니다.

AACE 의 유콩 자오 (Yukong Zhao) 대표는 "지속적으로 아시아인 미국인 사회를 지지해 온 에드 로이스 의장은 평등한 교육을 위한 권리 수호를 위해서는 특히 적극적입니다. 그는 지난 해, 아시아인 미국인 지원자들을 상대로 불공정한 입학사정을 적용해 온 하버드를 상대로 제기한 공동 행정소송을 지지하는 서안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로이스 의장은 "아시아인 미국인이기 때문에 명문대 교육을 받는 데 장애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우수한 학생들이 명문대 문턱에서 거절당한다면, 우리 아시아인 미국인 부모님들은 당연히 우려의 목소리를 낼 자격이 있습니다. 우수 대학들이 아시아인 미국인 학생들을 차별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입니다."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Washington, D.C. 20515

Official Business

This mailing was prepared, published
and mailed at taxpayer expense.

Ed Royce

M.C.
PRSRT STD

Chairman Royce Eliminates the Term “Orientals” from Federal Law

The President signed legislation first authored by Chairman Ed Royce and Congresswoman Grace Meng to remove the word “Oriental” from federal law and replace it with “Asian American.”

“Nobody, let alone the federal government, should use a hurtful term like ‘Orientals’ when referring to Americans of Asian descent. Americans of all backgrounds deserve to be treated with dignity and respect,” said Chairman Royce. “No longer will any law of the United States refer to Asian Americans in such an offensive way.”

연방법에서 “오리엔탈”이란 용어를 “아시아인 아메리칸”으로 바꾸는 법안이 에드 로이스 의장과 그레이스 멩 (Grace Meng) 연방 하원의원에 의해 최초 발의되어 대통령의 인준을 받아냈습니다.

로이스 의장은 “연방정부뿐 아니라 그 누구도, 아시아계 미국인을 “오리엔탈”같은 부적절한 용어로 지칭해선 안 됩니다. 모든 미국인은 태생과 출신에 상관없이 존엄하며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밝히며 “어떠한 미국 법률에서도 더 이상 아시아인 아메리칸을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강조합니다.



Chairman Royce commemorates Korean American Day in the U.S. Capitol and met with members of the community about U.S.-South Korea relations.

로이스 의장이 미 국회 의사당에서, 미국에 정착한 첫 한국인들을 기념하는 코리안 아메리칸의 날을 함께 축하하고 있습니다.

Members of the community attended Chairman Royce's Annual Women's Conference, a Congressional event the Chairman hosts about women's empowerment.

로이스 의장이 연례 여성 컨퍼런스에 참석한 사회 각계 인사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District Offices

Downtown Brea • 210 W Birch Street, Suite 201, Brea, CA 92821

Diamond Plaza • 1380 S. Fullerton Rd., Suite 205, Rowland Heights, CA 91748

Sign up for email updates at:
www.royce.house.gov



www.facebook.com/edroyce
www.twitter.com/repedroyce

www.instagram.com/repedroyce
www.royce.house.gov/

If I can be of assistance, please call (714) 255-0101 or (626) 964-5123